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수해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석경혜 기자 | ⓒ 승인 2026.08.20 18:26

중호우 대비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 찾아 안전관리 상태 점검

[국제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8월 20일, 최근 잦은 비와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 수해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수해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제아이저널

이날, 박승표 지사장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약지반 상태, 건설기계 안전관리,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다각도로 집중 점검했다.

박승표 지사장은 “근로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공정은 없다.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동지사는 관내 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밀착형 안전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석경혜 기자 iiij@iiij.co.kr